

생계형 창업의 창업가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창봉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준수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생계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 역량에 다차원적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생계형 창업의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 및 창업교육 개발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한다. 생계형 창업가는 창업 이전 미취업 상태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창업한 개인으로 정의된다. 생계형 창업가를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223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생계형 창업가의 응답으로 분류된 162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계형 창업가의 위험감수성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기회인식 역량과 회복탄력성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생계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가진다. 또한 역량冰山모델 관점에서 창업가 역량을 구분하여 내면적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을 최종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검증했다. 특히, 개인 차원에서의 회복탄력성을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며, 창업가 역량을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려는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가진다.

핵심주제어: 생계형 창업, 창업가 역량, 위험감수성, 기회인식 역량, 회복탄력성

1. 서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확대 및 창업에 대한 시각 변화 등 국내 창업환경이 친화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창업을 경력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하나의 행선지로 접근하기도 하며(Burton et al., 2016), 창업의 문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3.8%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5.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2.3%, 숙박·음식점업 22.8%, 도·소매업 29.7% 등 소상공인이 집중된 업종의 창업 5년 생존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예산은 2020년 1.4조 원에서 2024년 3.7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앞서 언급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산업 내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신청률은 각각 96.2%, 97.7%, 87.3%이며, 지원사업 수혜율은 각각 95.7%, 97.3%, 84.8%로 대부분 정부지원의 수혜를 받았다고 집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창업기업의 창업 5년 생존율이 20%대에 머물

고 있는 것은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재고해야함을 의미한다.

국내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창업 생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창업(Entrepreneurship)분야 연구들은 창업 의도, 창업효능감, 창업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어 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주목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업의 업력, 성장단계, 소상공인 여부, 벤처기업 여부 등, 기업의 본질적 특성 기준이 아닌, 결과론적인 현 상태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절감 등 특정 목적 하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면, 연구대상을 단일특성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셋째,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에 근거하여 창업가의 역량을 창업기업의 핵심자원으로 보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들은, 학자들마다 상이한 분류기준으로 창업가의 역량요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 주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imchangbong@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kjssoft@gmail.com

· 투고일: 2024-05-10

· 1차 수정일: 2024-06-07

· 2차 수정일: 2024-06-14

· 게재확정일: 2024-06-17

(Alvarez & Barney, 2017; Zahra & George, 2002; Morris et al., 2013; 이해영·김진수, 2019).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핵심 논점인 창업성공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또한 창업가의 창업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생계형 창업(Necessity Entrepreneurship)에 초점을 두었다. 생계형 창업은, 그에 상응하는 개념인 기회형 창업(Opportunity Entrepreneurship) 대비 연구가 미진한 분야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Mueller & Pieperhoff, 2023). 또한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원기반관점은 다른 기업이 모방 불가능한 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을 지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창업기업에 적용하면, 대기업 대비 자원이 열악한 창업기업들은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의 핵심자원으로 작용한다(Baum et al., 2001; Chandler & Hanks, 1994; Feeser & Willard, 1990). 이 때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인은 보통 창업가 역할에 의해 구분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량 빙산모델(Competency Iceberg Model) 관점으로 창업가 역량을 분류하고, 내면적 역량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 관련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던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하였다. 회복탄력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시킬 수 있는 개인적 능력(Dyer & McGuinness, 1996, Rutter, 2023)으로, 창업환경과 같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보았다(Grygorenko & Naydonova,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생계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역량에 다차원적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고 실증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IV장에서는 그 결과를 서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실증결과 기반의 결론 및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생계형 창업

생계형 창업은 개인이 다른 취업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한 경우로 정의되며,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에서 발간하는 2001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Creed & Reynolds, 2001). 반대되는 개념인 기회형 창업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대학 등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개인이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표본기업에 대한 분류는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창업 전 고용상태를 알 수 있다면 모든 창업가들을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airlie & Fossen, 2020).

해외에서는 생계형 창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미취업 상황에서 자영업(Self-employment)으로 전환되는 창

업에 대한 연구(Evans & Leighton, 1989), 외부요인으로 인한 실직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Farber, 1999) 등 ‘Necessity Entrepreneurship’이란 용어의 발생 이전부터 ‘Unemployment-driven Entrepreneurship’, ‘Pulled Entrepreneurship’ 등 생계형 창업과 동일대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생계형’이라는 상황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자금동원력 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여겨져 왔다(Block et al., 2015).

한편 국내에서는 생계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며, 생계형 창업에 대한 연구도 표본선정에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단순 구분하기도 한다(이윤숙 외, 2018). 본 연구는 GEM 보고서의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창업을 정의하고 설문문항에 창업직전 고용기회를 확인하는 문항을 두어 판별하였다.

2.2. 창업가 역량

역량은 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연구되었으며, 경영학 분야에서는 McClelland & Boyatzis(1982)의 연구에서 관리적 역량 모델(Managerial Competency)을 통해 소개되었다. 해당 모델에서 역량은 동기와 특질, 사회적 역할과 자기 이미지, 역할변경이라는 3가지 계층구조를 가지며, 직무에서 효과적인 활동이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된다(McClelland & Boyatzis, 1982). 또한 역량은 관찰, 측정 및 개발이 가능하며,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성과와 관련된 성과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McClelland, 1973; Spencer & Spencer, 1993). 특히, McClelland(1973)의 연구에서는 역량 빙산모델(Competency Iceberg Model)을 제안하며,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역량(기술)보다 내재적인 역량(동기, 특성, 자아 이미지, 사회적 역할)이 실제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한편 자원기반이론은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기업 내부의 고유자원과 역량이 경쟁우위를 제공한다는 이론이다(Barney, 1991). 이를 창업분야에 적용하면, 창업가는 기업에서 핵심 의사결정자로서(Baycan et al., 2003),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역량은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기업의 고유자원이라 여겨진다(Baum et al., 2001; Chandler & Hanks, 1994). 따라서 창업가 역량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고유자원으로 기업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Grant, 1991). 또한 창업가 역량은 벤처기업의 탄생, 생존, 그리고또는 성장의 결과로 귀결되는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 동기, 특질, 자아 이미지, 사회적 역할 및 기술과 같은 개인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정의된다(Bird, 199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역량 빙산모델을 기준으로 창업가의 내재적인 역량에 초점을 두고, 위험감수성, 기회인식 역량 및 회복탄력성을 하위요인으로 창업가 역량을 정의하였다.

2.2.1. 위험감수성

위험(Risk)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Miller, 1983). 위험은 손실(downside loss)로서의 위험, 기회(opportunity)로서의 위험 등 학자들 간 개념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Eduardsen & Marinova, 2020). 위험감수(Risk-taking)라는 개념은 기업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Eduardsen & Marinova, 2020), 기업의 성과뿐 아니라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i et al., 2012).

창업(Entrepreneurship)관점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창업가정신 정의에 포함되는 핵심 개념이다. 창업가정신을 조직차원에 적용한 창업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도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기회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Miller, 1983). 한편, 창업가(Entrepreneur)를 경제적 성공을 위해 불확실성(Uncertainty)을 이해하고 자원을 투자하는 사람(Knight, 1921)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여기서의 불확실성은 계산된 위험(Calculated-risk)으로 일반적인 위험과 구분된다. 즉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지함에도 자원을 할당하는 등의 과감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의미한다(Lumpkin & Dess, 1996).

따라서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에서의 위험은 상기 언급된 위험의 개념 중 기회(opportunity)로서의 위험과 개념적으로 더 유사하며, 창업가가 위험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2.2.2. 기회인식 역량

새로운 기회의 등장과 그것을 사업적 기회로 연결하는 방법은 창업연구 분야에 있어서 중심 주제이다(Baron, 2006; Shane & Venkataraman, 2000). 여기서 새로운 기회는 개인의 이전 경험 및 성향, 환경의 변화, 특정 정보의 습득, 사용자의 불만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Gaglio & Katz, 2001; Shane, 2000). 이를 사업적 기회로 개발(Development)하는 과정은 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 기회식별(Opportunity Identification), 기회평가(Opportunity Evaluation) 등을 포함한다(Ardichvili et al., 2003). 따라서 기회인식 역량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장의 기회를 인식하는데 한정되지 않으며, 식별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포함한다(Morris et al., 2013).

특히 창업가가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창업가의 존재론적 관점을 내포한다(Drucker, 1998). 또한 기회를 식별하는 것은 창업가가 창조한 기회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외부에 존재하는 잠재기회를 모두 포함한다(DeTienne & Chandler, 2007). 마지막으로 기회를 평가하는 능력은 시장 조사, 경쟁 분석,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회가 제공하는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상대적 매력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다(Morris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기회인식, 기회식별, 기회평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를 기회인식 능력으로 정의하였다(Lumpkin & Lichtenstein, 2005; Morris et al., 2013).

2.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드는 힘’으로, 예전에는 학자들이 ‘탄력성’, ‘심리적 건강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해 왔다(김주환, 2019). 즉, 회복탄력성은 실패와 고난을 극복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Garmezy, 1993; Neenan, 2009). 특히, 회복탄력성은 사회생태학 분야에서 태생하여, 조직 회복탄력성, 공급체인 회복탄력성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위기 및 ‘코로나-19’재난을 거치며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Barroso et al., 2011; Hillmann & Guenther, 2021; Holling, 1973).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는 연구 분야 및 학자마다 다양하게 보고 있다. 조직 차원에서의 회복탄력성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강건성(Robustness)과 민첩성(Agility)으로 구성된다(Coutu, 2002; Home & Orr, 1997; Vogus & Sutcliffe, 2007; 이정아, 2018). 교육 분야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의 외적요인과 통제력, 인지능력, 성격 등의 내적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이혜리·조한익, 2005). Connor와 Davidson은 회복탄력성 척도(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를 개발하고 강인성, 인내력, 낙관성, 통제감, 영성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Connor & Davidson, 2003).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 구조로 정의한다(Reivich & Shatte, 2003; 신우열 외, 2009).

2.3. 기업성과

기업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성하였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무적 성과의 분석을 위한 필수요소는 성장성과 수익성이다(Chandler & Hanks, 1994; Huang, 2021; Khan, 2022).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장성을 대표하는 ‘매출액 증가’를 측정하는 문항이 사용되었다. 또한, 수익성을 측정하되, 설문 대상이 생계형 창업자임을 감안하여 비용감소를 통한 수익성 향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창업 생존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생존을 위해 재투자 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재무적 성과에 포함하였다. 동일한 이유로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사회와 환경, 그리고 혁신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수준을 포함하였다. 이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직원 만족도 등(Ahmad et al., 2010, Liu et al., 2022) 창업기업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문항이 응답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응답자 주관에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

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창업기업 연구에 있어서, 재무적 성과에 비해 비재무적 성과는 연구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편차가 크며(이혜영·김진수, 2019), 본 연구는 5년 창업 생존율에 초점을 두었기에,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창업가의 인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며 기업성과를 정의하였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창업가역량이 기업의 핵심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Bird(1995)는 창업기업 연구에서 역량접근법(Competency Approach)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며, 창업가의 역량은 창업을 계획하고 설립하는 기본적인 수준을 결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어떤 역량으로 창업가 역량을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학자들은 창업의 생애주기 상 단계에 따라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각 다른 창업가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Colombo & Grilli, 2005; Rasmussen et al., 2011). 또한 학자마다 강조하는 창업가역량이 상이하기도 하다. Hood & Young(1993)과 Ronstadt et al.(1988)는 인간관계, 소통능력, 적응력 등 사회적 역량을, Freel(1999), Hofer & Charan(1984) 및 Tserenpuntsag et al.(2005)는 마케팅, 영업, 재무, 전략, 회계 등 기업의 기능관련 역량을, Chandler & Jansen(1992), Colombo & Grilli(2005) 및 Orser & Riding(2003)는 목표수립, 경영계획, 자원할당, 리더십 등 일반적인 경영관리 역량을, Chandler & Hanks(1994), McMullan & Long(1990) 및 Mitchelmore & Rowley(2010)는 기회인식 등 창업가적 역량을 강조했다.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소 구분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cClelland(1973)이 제안한 역량 빙산모델관점으로 살펴보면, Gorman et al.(1997) 및 Caruana et al.(1998)는 성공을 향한 갈망, 불확실성에 대한 역치, 위험감수성 등 창업가의 특질(Trait)을 연구한 반면, Baron(1998), Bird(1995) 및 Man et al.(2002)은 관찰 및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식, 행동, 태도 그리고 개발이 용이한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요약하면 창업가의 내재적 역량인 특질(Trait)과 표면적 역량인 인지능력(Cognitive) 중 어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대한 차이로 판단된다. 이는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Mixed Results) 현상으로 귀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Chandler & Hanks(1994)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적 역량을 기회인식 역량과 성공을 위한 열정으로 구성하며 매출성과와 정(+)의 관계임을 실증한 반면, 윤종록·김형철(2009)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구의 설계, 방법론, 표본 등의 차이와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소 차이에 기인한다(이혜영·김진수, 2019).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창봉·백남욱(2019)는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 윤종록·김형철(2009)는 관리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 김형철 외(2015)는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두었다. 해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별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소는 상이하나 주요 연구들은 창업가의 역할(Role)에 따라 창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하위요소를 구성하여 연구하였다(Chandler & Hanks, 1994; 윤종록·김형철,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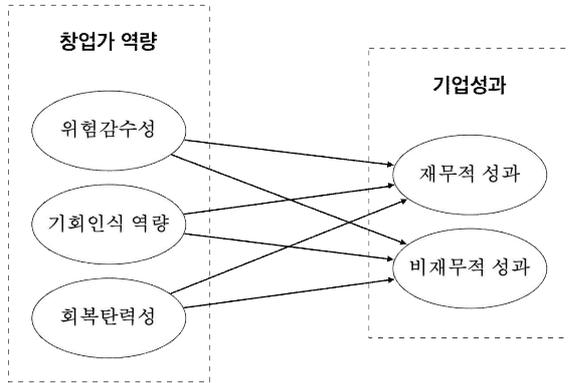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창업가 역량 요인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형태로 20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창업가 역량 측면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해 비구조화된 형태로 20분 진행하여, 총 40분씩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표 1> 창업가 역량 선정요인

No.	응답자	업종	업력	창업가 역량 선정요인	주요 답변
1	L사장	요식업	22년	기회포착 능력, 긍정적 생각, 끈기, 절약정신, 목표의식, 상권 경쟁구도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 강화, 서울 관악 등 많이 다니면서 장사해봤다. 동네장사는 상권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잘 파악해야 오래 살아남는다. 코로나 때 어려울 수 있었는데, 남들보다 샴인샴 처럼 새롭게 매상을 올릴 방법이라던가, 배달도 좀 빠르게 시작해서 오히려 호접을 늘렸다.
2	K사장	요식업	18년	유행에 민감, 서비스 정신, 긍정성, 과감한 투자, 사람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에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남들 안하던 때라서 좀 과감하게 시작해서 잘됐어요. 지금 식당도 남들보다 싸게 팔아야 되니까 크게 해요. 규모가 좀 커야 물건도 싸게 가져오고, 사람들도 몰릴 때 오니까요.
3	P사장	요식업	14년	차별화, 경쟁분석 및 대응, 기획 능력, 고객 니즈 파악, 과감한 시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즘엔 멀리까지 배달이 되서, 저희 가게 음식도 멀리서 시킬 수 있지만, 동네 사람들도 멀리 있는 가게에서 시키니까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졌어요. 유튜브도 보고 메뉴도 계속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해서, 분위기도 바꾸고 계속 해야 단골도 한번 더 오고, 안와봤던 사람들도 좀 오고해요.
4	J사장	소매업	20년	단골 고객관리, 공급자와의 관계, 재무관리, 감사한 태도, 긍정적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가 만나본 주위에 잘되는 집 사장님들은 다 긍정적이예요. 그분들 모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항상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중요한건 손님이나 업자들한테도 친절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요.
5	K사장	요식업	12년	정보수집 능력, 소비자 니즈 파악, 새로운 시도, 기획 능력, 사람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엔 치킨 가맹점으로 시작했음. 몇몇 점주끼리 좀 친해져서, 어울리다 보니 아이디어도 생기고, 같이 호프도 해보고 하면서 그게 잘 되었음. 여러 점포 관리하려면 사람도 관리 잘 해야 함. 매출 추이를 잘 봐서 빠르게 대응해야 함.
6	K사장	요식업	16년	기회포착 능력, 사람관리 능력, 상권분석 능력, 노력하는 자세, 감사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맛 내려고 전국을 많이 다님. 상권은 나쁘지 않았는데 처음엔 많이 힘들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함.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음.

*자료: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정리

변수 및 측정문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역량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전문가들이 언급한 ‘과감한 투자’ 및 ‘시설투자’는 위험감수성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K사장은 생계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기회를 발견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변곡점을 만든 것으로 답변했다. 둘째, ‘기회포착 능력’, ‘유행에 민감’, ‘고객니즈 파악’, ‘정보수집 능력’, ‘소비자 니즈 파악’은 기회인식 역량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생존과 연계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목표의식’, ‘단골 고객관리’, ‘공급자와의 관계’, ‘긍정적 생각’, ‘긍정성’, ‘감사한 태도’, ‘긍정적 사고’는 회복탄력성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J사장은 이전 실패가 오늘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하였다. 앞선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창업가의 창업 이전 경험들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Beckman et al., 2007). 하지만 생계형 창업가는 실업 상황에서 창업을 선택하며, 복잡성이 낮고, 비용투입을 최소화하며, 즉시 접근이 가능한 업종에 창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창업가의 산업, 기술 등에 대한 과거 지식 및 경험이 활용될 여지가 낮다. 따라서 생계형 창업가는 기회형 창업가 대비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의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Baptista et al., 2014)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창업가 역량이 이전 직장경험에서 얻는 지식 및 기술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Gruber et al.(2024)는 생계형창업가의 특정 인적자원(Specific Human Capital)이 일반적 인적자원(General Human Capital)보다 기업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나, 일반적 인적자원도 정(+)의 영향을 미침을 500여개의 생계형 창업기업 데이터로 실증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의 경우, GEM의 생계형 창업가 정의에 따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생계형 창업과 유사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연구들 중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위험감수성을 포함하는 창업가적 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다(김재홍 외, 2021; 소은영·박성환, 2015). 즉, 생계형 창업가의 역량이 낮은 경우 기업성과도 낮을 수 있어 변수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1. 위험감수성과 기업성과

다양한 연구들에서 위험감수성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들이 채택되었다. 전통적으로 투자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준이 더 높다면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한 높은 기대수익률을 예상한다. 여기에서 위험감수성은 기회 및 역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감수성은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성과를 창출하는 요인으로도 확인된다(Dimitratos et al., 2014). 특히 기업의 국제화와 같은 사업 확장 상황에서, 기업가의 위험감수성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 및 조직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면, 위험감수성이 이를 조절한다(조연성, 2012).

창업관련 연구에서도 창업가의 위험감수성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론이다(김재홍 외, 2021; 소은영·박성환, 2015; Miller, 1983; Covin & Slevin, 1989). 이를 생계형 창업에 적용해도, 창업가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려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 위험감수성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분명 생계형 창업가의 위험감수성과 기회형 창업가의 위험감수성 간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기회형 창업자는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며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을 한 경우이나, 생계형 창업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aptista et al., 2014). 하지만 생계형 창업가 집단 내에서 창업가의 위험감수성 차이는 기업의 성과 차이로 귀결되며 정(+)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겠다.

생계형 창업기업 대상 국내 연구가 다소 미진하기에 유사개념의 소상공인 대상 연구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소상공인의 위험감수성 또한 기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원종하·정대현, 2017). 또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매출이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거나 기회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이 존재함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 확장 및 적극적 투자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비중이 높았다. 선행연구 및 인터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생계형 창업가의 위험감수성은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생계형 창업가의 위험감수성은 창업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기회인식 역량과 기업성과

Drucker(1985)는 ‘기회’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창업가정신에서 기회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표 1>과 같이,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기회인식 역량은 창업가의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2> 기회인식 역량이 포함된 연구

저자(연도)	창업가 역량 구성요인
Chandler & Jansen (1992)	자원 활용 역량, 기회인식 역량, 기술적 역량, 정치적 역량, 개념화 역량
Man et al.(2002)	기회인식 역량, 조직화 역량, 전략적 역량, 관계 역량, 몰입 역량, 개념화 역량
Priyanto & Sandjojo (2005)	관리적 역량, 산업 전문성, 기회인식 역량, 기술적 역량
Ahmad et al.(2010)	전략적 역량, 개념화 역량, 기회인식 역량, 리더십 역량, 관계 역량, 기술적 역량
Tehseen & Ramayah (2015)	전략적 역량, 개념화 역량, 기회인식 역량, 학습 역량, 윤리역량, 가족적 역량
김형철 외(2015)	기회인식 역량, 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
Zhao(2016)	기회인식 역량, 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 관계 역량
이혜영·김진수(2019)	기회인식 역량

Chandler & Jansen(1992)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기회인식 역량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기회인식 역량이 높은 기업은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개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Man et al., 2002).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대상 연구에서도 기회인식 역량이 높은 기업이 더 높은 기업성과를 보였다(Priyanto & Sandjojo, 2005).

이와 같이 기회인식 역량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나 그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학자별 시각차가 존재한다. Tang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들을 결합해서 평가하는 능력을 기회인식 역량으로 보고 있다. 반면, Morris et al.(2013) 연구에서는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로 기회인식 역량이 구성된다. 또한, 기회인식 역량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작에 대해서도 학자별 시각차를 보인다. Ahmad et al.(2010)은 기회인식 역량이 높은 기업은 창업지향성이 강하며 이로 인해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창업지향성을 개인차원의 창업가정신으로 치환하면, 기회인식 역량은 창업가정신을 매개하여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Krueger & Dickson(1994)의 연구에서는 기회인식 역량이 위험감수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두 연구 모두 기회인식 역량이 창업가정신 또는 그 구성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결론에 이른다.

본 연구의 대상인 생계형 창업가는 기회를 발견하고 창업한 경우는 아니지만 창업 후 접하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많은 창업행동(Entrepreneurial Activities)을 전개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회를 평가하는 시각을 성장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초기에 인지하는 기회는 불완전한 컨셉에 불과하나 창업가들이 노력을 통해 개발하여 정교해지고 비즈니스로 형성된다는 연구에 의해 지지받는다(Ardichvili et al., 2003). 따라서 기회인식 역량은 경험을 통해 발전이 가능한 역량으로, 생계형 창업가들은 기회인식 역량을 발전시키며 기업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6명 중 5명이 기회인식 역량이 기업성과의 결정요인임을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요식업종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중시하며, 새로운 기회를 꾸준히 찾아내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생계형 창업가의 기회인식 역량은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생계형 창업가의 기회인식 역량은 창업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회복탄력성과 기업성과

경영학 분야에서는 회복탄력성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내부자원으로 본다(Block & Kremen, 1996). 조직 차원 회복탄력성은 외부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해도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역량으로 작용한다(Gulati, 2010). 개인 차원 회복탄력성에 관한 최근연구를 살펴보면, 195개의 소규모 가족경영기업(Family Business) 대상 연구에서 직원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성과가 정(+)의 관계에 있으며,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이 이를 조절한다는 것을 실증했다(Santoro et al., 2021).

회복탄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대부분의 연구는 조직 차원에서의 회복탄력성을 변수로 채택한다. 창업학문 분야에서도 창업실패를 경험한 창업가 대상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김수연 외, 2019).

본 연구에서 정의한 회복탄력성의 하위개념은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다. 자기조절능력은 ‘어려운 목표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Baum et al., 2001; Locke & Latham, 2006),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U자’형의 결과들을 보인다(Carver & Scheier, 1990; Wrosch et al., 2007). 목표설정은 창업가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론인데(Taylor et al., 1984; Wood & Locke, 1990), 자기조절능력이 자기효능감을 제한하여 과도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조절능력은 창업가의 과도한 자기효능감을 제한함으로써 무리한 목표수립을 방지해, 목표가 기업의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Baron et al., 2016; Hiller & Hambrick, 2005).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창업가, 특히 생계형 창업가의 경우,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는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연구에서 관계역량, 네트워크 역량, 사회적 관계역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이는 대인관계능력의 경우 관계 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요인에 초점을 둔 반면, 관계역량, 네트워크 역량, 사회적 관계역량 등은 파트너기업, 정부·지자체 관계, 금융기관 관계 등 확보된 네트워크의 크기(Size), 깊이(Depth), 다양성(Diversity) 등에 초점을 둔다(Boso et al., 2013; Lau & Bruton, 2011; 김창봉·백남욱, 2019). 대부분의 연구에서 창업가의 사회적 및 사업적 관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지지된다. 특히 Boso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및 사업적 관계가 잘 개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창업가의 창업가 정신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은 생계형 창업가의, 기능적 지식 또는 스킬과는 다른, 특성이 반영된 구성요소로서 소비자와의 관계, 공급자와의 관계,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관계 등 창업기업에 무형적인 네트워크 자산을 형성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긍정성은 주로 창업실패자 대상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긍정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주의는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인 중 위험감수성 및 진취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허계강, 2022). 또한 긍정성은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으로써 리더십을 통해 동기부여와 창의성을 촉진하며,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Luthans & Youssef-Morgan, 2017). 이상 회복탄력성에 포함되는 요인들이 어떻게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해 보았을 때, 각각의 요인들이 직접적 또는 다른 요인을 매개하여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보면, 6명 중 5명의 전문가들은 긍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목표의식 및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아래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 5: 생계형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생계형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창업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을 ‘타 창업기업 대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창업가의 내면적 특성’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역량 기반모델 관점에서 창업가의 내면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위험감수성’, ‘기회인식 역량’ 및 ‘회복탄력성’의 다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및 선행연구는 <표 3>와 같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선행연구
위험감수성	a1. 경쟁 인식 및 경쟁우위 선호 정도 a2. 위험 선호 경향의 정도 a3. 기업운영에 대한 위험성 인지 성향 a4. 불확실한 상황 속 의사결정 성향	Miller(1983); Covin & Slevin (1989); Li et al.(2008); 김창봉·백남욱 (2019)
기회인식 역량	b1. 해소되지 않은 니즈 인지 능력 b2. 시장 수요의 효과적 평가 능력 b3. 시장 트렌드 및 선호도 분석 능력 b4. 제품 혁신 가능성 인지 능력	Chandler & Jansen(1992); Man et al. (2002); Morris et al.(2013);
회복탄력성	c1. 이상과 현실 긍정적 사고 c2. 현재 상황 및 여건 만족 정도 c3. 삶에 대한 만족도 c4. 핵심가치 소유에 대한 만족도 c5. 삶에 대한 소중함 감정 정도	Reivich & Shatte(2003); 신우열 외 (2009); 김주환(2019)
재무적성과	d1. 지속적 매출액 증가 d2. 장기적 투자 가치 창출 d3. 효율적 자원 관리	Chandler & Hanks(1994); 박종철·이광현 (2009); 김창봉·송세영 (2021)
비재무적성과	e1. 긍정적 지역 사회 영향 e2. 지속 가능한 환경 성과 e3. 혁신과 창의성 장려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생계형 창업가의 분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표본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방문 및 e나라도움 이용업체를 중심으로 추출하였으며, 총 31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23부(70%) 중 생계형 창업을 판별하는 문항을 기준으로 162부(51%)의 설문지를 생계형 창업가의 응답으로 분류하고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SPSS 28.0 Statistics 통계패키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에 관한 측정요인의 구성 과정에서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요인에 관한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척도분석을 수행하여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변별타당도를 검토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연구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표본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 94.5%, 종업원 수 5명 미만 기업 88.9%의 비중 비중을 보인다. 5년 이상 운영 기업이 67.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창업 후 창업가의 역량과 성과창출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적절한 표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하는 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 54.3%, 이외의 지역 45.7%의 비중으로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표본이 수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연구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연간매출액			종업 수		
1.5억 원 미만	101	62.3	5명 미만	144	88.9
1.5~5억 원 미만	35	21.6	5~10명 미만	13	8.0
5~10억 원 미만	17	1.6	10~30명 미만	3	1.9
10억원 이상	9	5.5	30명 이상	2	1.2
업력			지역		
3년 미만	27	16.7	서울	45	27.8
3~5년 미만	26	16.0	경기·인천	43	26.5
5~7년 미만	20	12.3	충청·강원	23	14.2
7~10년 미만	25	15.4	영남권	41	25.3
10년 이상	64	39.5	호남·제주	10	6.2

4.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요인에 대해 구성타당도 중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하여 6회전 후 수렴하여 요인분석 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요인분석 모형은 KMO 계수가 .896으로 .800 이상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에서도 p-value가 0.05 이하로 나타나 표본의 수집과 측정요인의 구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Silva et al., 2022).

또한 각 측정요인은 요인분석 모형에 관한 공통성이 .5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에 관한 요인적재치가 .500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한 수렴타당도를 보였다(Maskey et al., 2018). 그리고 각 측정요인은 다른 변수에 관한 요인적재치가 .500 이하로 나타나 유의한 변별타당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측정요인은 변수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누적 분산은 60% 이상으로 요인분석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뢰도는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요인의 반복 측정 가능성을 통해 판단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두 0.700 이상의 유의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Shrestha,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에 구성된 측정요인이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신뢰도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측정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공통성	회복탄력성	위험감수성	기회인식 역량	비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과	Cronbach's α
c3	삶에 대한 만족도	.781	.845	.127	.155	.072	.917
c1	이상과 현실 긍정적 사고	.766	.837	.141	.155	-.079	
c2	현재 상황 및 여건 만족 정도	.804	.833	.185	.246	.111	
c5	삶에 대한 소중함 감정 정도	.748	.808	.232	.051	.143	
c4	핵심가치 소유에 대한 만족도	.779	.805	.116	.175	.064	
a1	경쟁 인식 및 경쟁우위 선호 정도	.820	.199	.848	.135	.103	.884
a2	위험 선호 경향의 정도	.735	.253	.772	.060	.212	
a3	기업운영에 대한 위험성 인지 상황	.727	.119	.771	.288	.164	
a4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상황	.728	.192	.762	.256	.163	
b3	시장 트렌드 및 선호도 분석 능력	.797	.146	.020	.858	.063	.874
b2	시장 수요의 효과적 평가 능력	.796	.340	.272	.776	.061	
b4	제품 혁신 가능성 인지 능력	.742	.139	.310	.766	.100	
b1	해소되지 않은 니즈 인지 능력	.652	.143	.173	.751	.122	
e1	긍정적 지역 사회 영향	.869	.178	.189	.061	.887	.822
e2	지속 가능한 환경 성과	.782	.167	.192	.084	.828	
e3	혁신과 창의성 장려	.701	.000	.229	.319	.580	
d2	장기적 투자 가치 창출	.782	.125	.140	.119	.479	.802
d1	지속적 매출액 증가	.788	.434	.259	.309	.044	
d3	효율적 자원 관리	.752	.132	.413	.338	.227	
고위값			4.023	3.211	3.139	2.291	-
분산			21.173	16.902	16.519	12.060	
누적분산			21.173	38.075	54.594	66.654	

주 1) KMO(Kaiser-Meyer-Olkin)=.896 /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2074.395$, $df=171$, $p<0.05$

주 2) 카이제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방식으로 6회전 후 수렴한 주성분분석

4.2.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변수 상호 간 설명력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판별타당도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는 0.800 이하의 상관관계 계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각 변수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본 연구의 가설이 추정하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법칙타당도 측면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

<표 6>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분	창업가 정신	기회인식 역량	회복 탄력성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위험 감수성	1.000	-	-	-	-
기회인식 역량	.450**	1.000	-	-	-
회복 탄력성	.501**	.462**	1.000	-	-
재무적 성과	.566**	.505**	.593**	1.000	-
비재무적 성과	.375**	.346**	.494**	.624**	1.000

주) **: $p < .01$, *: $p < .05$

4.3. 가설검정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위해 SPSS 28.0 statistic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위험감수성($\beta = .347, p < .01$), 기회인식역량($\beta = .297, p < .01$), 회복탄력성($\beta = .211, p < .01$) 모두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재무적 성과에는 위험감수성($\beta = .373, p < .01$)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인식 역량($\beta = .138, p > .05$)과 회복탄력성($\beta = .112, p > .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5를 지지하고 있으며, 가설 4와 가설 6은 지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Model 1	Model 2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
위험감수성	.347 (.061)**	.373 (.070)**
기회인식 역량	.297 (.084)**	.138 (.097)
회복탄력성	.211 (.063)**	.112 (.072)
ΔR^2	0.471	0.261
F-통계량	48.703**	19.932**

주) **: $p < .01$, *: $p < .05$

V.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론 및 시사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창업기업이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 끼치는 영향이 증가하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창업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창업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및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창업기업 수 측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취업이 어려워 창업으로 몰린(Unemployment-driven Entrepreneurship) 생계형 창업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생계형 창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면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위험감수성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는 반면, 기회인식 역량과 회복탄력성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감수성이 기업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기존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Covin & Slevin, 1989; Dimitratos et al., 2014; Miller, 1983). 또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강조되었던 것과 같이, 정보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해 고객의 니즈 및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인식할 경우,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려는 창업가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추가로 발견한 부분은, 위험을 기회로 인식하고 성장의 번복점을 경험한 창업가들은 계속해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기회인식과 위험감수성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앞선 문헌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본 연구도 창업가의 위험감수성과 기회인식 역량 모두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가의 기회인식 역량 및 회복탄력성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이 ‘긍정적 지역 사회 영향’, ‘지속 가능한 환경성과’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지속가능성 보다 단기적 성과를 위한 기회에 초점을 맞춘 생계형 창업가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도 해석된다. 반면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서는 이와 같이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전문가 중 일부는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 및 종교단체 후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환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전문가들은 생계를 위해 창업을 했으나,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장기적인 시각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가의 위험감수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생계형 창업가의 위험감수성은 기업의 성장기 창업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근거로, 창업가의 내면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뿐 아니라, 내면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창업교육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기술 및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창업교육 지원방향은 정부지원이 증가함에도 창업 생존율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에 일조한다고 판단된다. 내면적 역량에 대한 교육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분명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침이 본 연구를 통해 실증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델파이연구를 통해 도출된 창업가의 주요 역량이자 개발이 가능한 역량(Morris et al, 2013)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도 회복탄력성이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된 이유는 앞서 설명된 생계형 창업가의 특성적 이유일 수 있겠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며 향상되는 특성을 가진 역량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도 및 도전을 하지 않는 창업자라면 회복탄력성이 성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업력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며 발전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가들도 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도전 및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사업실패를 경험한 생계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적절한 회복탄력성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생계형 창업가 전체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이는 생계형 창업가의 유형도 세분화 될 수 있음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창업 이전 미취업 상태였던 이유가 다양할 수 있다. 이전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후 취업 경쟁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창업을 선택한 경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 미취업의 경우 등 생계형 창업자가 단일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Weber et al., 2023) 생계형 창업가를 단일대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며, 후속 연구에서는 생계형 창업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생계형 창업의 발생원인에 따라 일반적인 생계형 창업과 비자발적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하여 다중 집단분석(MGA: Multi Group Analysis)을 수행한다면, 집단 간 역량차이, 기업성과 결정요인 차이 등을 도출하여,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 관점에서 더욱 실용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생계형 창업가 판별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응답에 따라 생계형 창업가를 구분하였으나, 응답자들은 자신의 취업 경쟁력에 대해 객관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미취업 상황이었지만 기회를 발견하고 창업을 한 것으로 자기중심적 편향(Egocentric Bias)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셋째, 생계형 창업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회형 창업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를 통해, 두 집단 간 역량의 차이, 역량별 기업성과와의 관계 차이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면, 정부지원 정책 및 창업교육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생계형 창업가와 기회형 창업가의 차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창업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측정도구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즉 GEM에서 정의한 생계형창업가는 그 고유한 특성을 보유한 연구대상으로써, 벤처기업, ICT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활용되던 기존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인 및 측정도구를 생계형 창업가의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창업가의 역량요인에 대해 기업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연구한다면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로부터 도출된 창업가의 내재적 역량으로 한정하여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생계형 창업가들도 전략적 역량, 리더십 역량 등 표면적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역량冰山모델 관점에서 기술 및 지식에 해당하는 표면적 역량을 연구에 포함한다면, 기업성과에 대한 창업가 역량의 영향에 대한 설명력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김재홍·최낙희·김재철(2021). 소상공인의 창업가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쟁자지향성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6(3), 128-156.

김주환(2019). *회복탄력성 (리키버):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육의 힘*. 서울: 위즈덤하우스.

김수연·곽성열·정강욱(2019). 회복탄력성이 기업실패 창업가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2(1), 57-82.

김창봉·백남욱(2019).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과 경험 특성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 연구: 사회적 가치 추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5), 43-59.

김창봉·송세영(2021). 제조 및 서비스 분야 기업의 창업가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관리학회지*, 32(3), 235-252.

김형철·임아름·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8(2), 27-58.

박종철·이광현(2009).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기업신뢰 및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1(2), 1-22.

- 소은영·박성환(2015).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0(1), 245-264.
-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원종하·정대현(2017).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이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1), 111-121.
- 윤종록·김형철(2009).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2(6), 3693-3721.
- 이정아(2018). *지각된 조직회복탄력성이 혁신행동 및 조직자발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심리계약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윤숙·이상준·신호정(2018). 기업가의 창업동기와 고용창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7(4), 783-805.
- 이해리·조한익(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이혜영·김진수(2019).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벤처창업연구*, 14(5), 13-24.
- 조연성(2012).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 관계에서 제품차별화 역량의 매개효과. *통상정보연구*, 14(3), 113-138.
- 허제강(2022). 재기창업자본이 기업가정신을 통하여 창업실패자의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규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연구*, 7(2), 118-171.
- Ahmad, N. H., Ramayah, T., Wilson, C., & Kummerow, L.(2010). Is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business success relationship contingent upon business environment? A study of Malaysian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3), 182-203.
- Alvarez, S. A., & Barney, J. B.(2017). Resource-based theory and the entrepreneurial firm. *Strategic entrepreneurship: Creating a new mindset*, 87-105.
-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 Baptista, R., Karaöz, M., & Mendonça, J.(2014). The impact of human capital on the early success of necessity versus opportunity-based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Economics*, 42, 831-847.
- Barney, J. B.(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aron, R. A.(1998). Cognitive mechanisms in entrepreneurship: Why and when entrepreneurs think differently than other peop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75-294.
- Baron, R. A.(2006). Opportunity recognition as pattern recognition: How entrepreneurs 'connect the dots' to identify new business opportunitie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0(1), 104-119.
- Baron, R. A., Mueller, B. A., & Wolfe, M. T.(2016).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s' adoption of unattainable goals: The restraining effects of self-control.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1), 55-71.
- Barroso, A. P., Machado, V. H., & Machado, V. C.(2011). Supply chain resilience using the mapping approach. *Supply chain management*, 161-184.
- Baycan Levent, T., Masurel, E., & Nijkamp, P.(2003). Diversity in entrepreneurship: ethnic and female roles in urban economic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0(11), 1131-1161.
- Baum, J. R., Locke, E. A., & Smith, K. G.(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eckman, C. M., Burton, M. D., & O'Reilly, C.(2007). Early teams: The impact of team demography on VC financing and going publ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2), 147-173.
- Bird, B.(1995). Towards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2, 51-72.
- Block, J. H., Kohn, K., Miller, D., & Ullrich, K.(2015). Necessity entrepreneurship and competitive strategy. *Small Business Economics*, 44, 37-54.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
- Boso, N., Story, V. M., & Cadogan, J. W.(2013). Entrepreneurial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network ties, and performance: Study of entrepreneurial firms in a developing econom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6), 708-727.
- Burton, M. D., Sørensen, J. B., & Dobrev, S. D.(2016). A careers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0(2), 237-247.
- Caruana, A., Morris, M. H., & Vella, A. J.(1998). The effect of centralization and formalization on entrepreneurship in export fir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6(1), 16.
- Carver, C. S., & Scheier, M. F.(1990). Origins and func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control-process view. *Psychological review*, 97(1), 19.
- Chandler, G. N., & Hanks, S. H.(1992).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emerging businesses: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5), 391-408.
- Chandler, G. N., & Hanks, S. H.(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olombo, M. G., & Grilli, L.(2005). Founders' human capital and the growth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A competence-based view. *Research policy*, 34(6), 795-816.
- Connor, K. M., & Davidson, J. R.(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Coutu, D. L.(2002). How resilience works. *Harvard business review*, 80(5), 46-56.
- Covin, J. G., & Slevin, D. P.(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 Creed, P. A., & Reynolds, J.(2001). Economic deprivation, experiential deprivation and social loneliness in unemployed and employed youth.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1(3), 167-178.
- DeTienne, D. R., & Chandler, G. N.(2007). The role of

- gender in opportunity identifi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65-386.
- Dimitratos, P., Amorós, J. E., Etchebarne, M. S., & Felzensztein, C.(2014). Micro-multinational or not?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networking and learning effect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5), 908-915.
- Drucker, P. F.(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Harper & Row.
- Drucker, P. F.(1998).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149-157.
- Dyer, J. G., & McGuinness, T. M.(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Eduardsen, J., & Marinova, S.(2020). Internationalisation and risk: Literature review, integrative framework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9(3), 101688.
- Evans, D. S., & Leighton, L. S.(1989). The determinants of changes in US self-employment, 1968-1987. *Small Business Economics*, 1, 111-119.
- Fairlie, R. W., & Fossen, F. M.(2020). *Defining opportunity versus necessity entrepreneurship: Two components of business creation. In Change at home, in the labor market, and on the job*. Bingley: Emerald Publishing Limited.
- Farber, H. S.(1999). Mobility and stability: The dynamics of job change in labor market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 2439-2483.
- Feeser, H. R., & Willard, G. E.(1990). Founding strategy and performance: A comparison of high and low growth high tech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2), 87-98.
- Freel, M. S.(1999). Where are the skills gaps in innovative small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5(3), 144-154.
- Gaglio, C. M., & Katz, J. A.(2001). The psychological basis of opportunity identification: Entrepreneurial alertness. *Small business economics*, 16, 95-111.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1), 127-136.
- Gorman, G., Hanlon, D., & King, W.(1997). Some research perspectiv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erpris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mall business management: a ten-year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5(3), 56-77.
- Gruber, M., Dencker, J. C., & Nikiforou, A.(2024). How founder human capital and founding conditions shape new firm performance: A study of necessity entrepreneurship during times of economic crisi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67(2), 382-406.
- Grant, R. M.(1991). The resource-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implications for strategy formul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3(3), 114-135.
- Grygorenko, Z., & Naydonova, G.(2023). The concept of 'resilience': history of formation and approaches to defini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review*, (2), 76-88.
- Gulati, R.(2010). *Reorganize for resilience: Putting customers at the center of your business*. Brighton: Harvard Business Press.
- Hiller, N. J., & Hambrick, D. C.(2005). Conceptualizing executive hubris: the role of (hyper-) core self-evaluations in strategic decision-mak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6(4), 297-319.
- Hillmann, J., & Guenther, E.(2021). Organizational resilience: a valuable construct for management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23(1), 7-44.
- Hofer, C. W., & Charan, R.(1984). The transition to professional management: mission impossible?.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9(1), 1-11.
- Holling, C. S.(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1), 1-23.
- Home III, J. F., & Orr, J. E.(1997). Assessing behaviors that create resilient organizations. *Employment relations today*, 24(4), 29-39.
- Hood, J. N., & Young, J. E.(1993). Entrepreneurship's requisite areas of development: A survey of top executives in successful entrepreneurial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2), 115-135.
- Huang, D. Z.(2021).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activity and firm performance: A review and consolidation. *Accounting & finance*, 61(1), 335-360.
- Khan, M. A.(2022). ESG disclosure and firm performance: A bibliometric and meta analysis.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61, 101668.
- Knight, F. H.(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Krueger Jr, N., & Dickson, P. R.(1994). How believing in ourselves increases risk taking: Perceived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Decision sciences*, 25(3), 385-400.
- Lau, C. M., & Bruton, G. D.(2011). Strategic orientations and strategies of high technology ventures in two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World Business*, 46(3), 371-380.
- Li, J., Young, M. N., & Tang, G.(2012).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in Chinese communities: An organizational symbiosis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29, 367-385.
- Liu, Y., Kim, C. Y., Lee, E. H., & Yoo, J. W.(2022).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Mediating effect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moderating effect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Sustainability*, 14(3), 1168.
- Locke, E. A., & Latham, G. P.(2006). New directions in goal-setting theo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5), 265-268.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umpkin, G. T., & Lichtenstein, B. B.(2005). The role of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opportunity-recognition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4), 451-472.

- Luthans, F., & Youssef-Morgan, C. M.(2017). Psychological capital: An evidence-based positive approach.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4, 339-366.
- Man, T. W., Lau, T., & Chan, K. F.(2002).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nceptualization with focu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2), 123-142.
- Maskey, R., Fei, J., & Nguyen, H. O.(2018).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maritime research.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34(2), 91-111.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cClelland, D. C., & Boyatzis, R. E.(1982). Leadership motive pattern and long-term success in manag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6), 737.
- McMullan, W., & Long, W. A.(1990). *Developing new ventures: The entrepreneurial option*.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itchelmore, S., & Rowley, J.(201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ment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2), 92-111.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Mueller, H., & Pieperhoff, M.(2023). Necessity entrepreneurship: an integrative review and research agenda.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35(9-10), 762-787.
- Neenan, M.(2009). *Developing resilience: A cognitive-behavioural approach*. East Essex, UK: Routledge.
- Orser, B., & Riding, A. L.(2003). *Management competencies and SME performance criteria: A pilot study*. Ottawa: Small Business Policy Branch, Industry Canada.
- Priyanto, S. H., & Sandjojo, I.(2005).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learning,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venture success: empirical study on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5-6), 454-468.
- Rasmussen, E., Mosey, S., & Wright, M.(2011). The evolution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longitudinal study of university spin-off venture emerge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8(6), 1314-1345.
- Reivich, K., & Shatté, A.(2003). *The resilience factor: 7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Ashland: Broadway books.
- Ronstadt, R., Vesper, K. H., & McMullan, W. E.(1988). Entrepreneurship: today courses, tomorrow degre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1), 7-13.
- Rutter, M.(2023). Resilience: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s. *Social Work*, 122-127.
- Santoro, G., Messeni-Petruzzelli, A., & Del Giudice, M.(2021). Searching for resilience: the impact of employee-level and entrepreneur-level resilience on firm performance in small family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57(1), 455-471.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ane, S.(2000). Prior knowledge and the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Organization science*, 11(4), 448-469.
- Shrestha, N.(2021). Factor analysis as a tool for surve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9(1), 4-11.
- Silva, P., Teixeira Vale, V. T., & Moutinho, V. F.(2022). What is the valu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the network and performance? An examination in trade fairs context. *Innovation & Management Review*, 19(1), 62-83.
- Spencer, L. M., &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US: John Wiley & Sons.
- Tang, J., Kacmar, K. M. M., & Busenitz, L.(2012). Entrepreneurial alertness in the pursuit of new opportuni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1), 77-94.
- Taylor, M. S., Fisher, C. D., & Ilgen, D. R.(1984). *Individual's reactions to performance feedback in organizations: A control theory perspective*. Greenwich: JAI Press.
- Tehseen, S., & Ramayah, T.(2015).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SMEs business success: The contingent role of external integration.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6(1), 50-61.
- Tserenpuntsag, B., Chang, H. G., Smith, P. F., & Morse, D. L.(2005). Hemolytic uremic syndrome risk and Escherichia coli O157: H7.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1(12), 1955.
- Vogus, T. J., & Sutcliffe, K. M.(2007). Organizational resilience: Towards a theory and research agenda. *200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3418-3422.
- Weber, C., Fasse, A., Haugh, H. M., & Grote, U.(2023). Varieties of necessity entrepreneurship-new insights from Sub Saharan Africa.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7(5), 1843-1876.
- Wood, R. E., & Locke, E. A.(1990). *Goal setting and strategy effects on complex tasks*. CT: JAI.
- Wrosch, C., Miller, G. E., Scheier, M. F., & De Pontet, S. B.(2007). Giving up on unattainable goals: Benefits for heal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2), 251-265.
- Zahra, S. A., & George, G.(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185-203.
- Zhao, Z. (2016). *Research on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college students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Retrieved from <https://doi.org/10.2991/icelaic-16.2017.60>.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Firm Performance of Necessity Entrepreneurship in Korea

Chang Bong Kim*

Joon Soo K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ffect firm outcomes for necessity entrepreneurship in Korea. Based on a survey collected from 162 necessity entrepreneurs,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founder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such as risk-taking, tend to be associated with positive outcomes financially as well as non-financially, which suggests that the existing proposition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taking and firm performance can be applied to necessity entrepreneurship as well. Additionally, founder opportunity competencies and resilience increase the likelihood of better financial performance in necessity entrepreneurship compared to others, whereas their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ndicates that necessity entrepreneurs are likely to focus more on financial performance to survive than on non-financial performance, particularly concerning variables related to sustainability such as the environment and soc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knowledge concerning the role of necessity entrepreneurs' competenci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ompanies.

KeyWords: Necessit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Risk-taking, Opportunity Competencies, Resilience

* First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kimchangbong@cau.ac.kr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kjsoft@gmail.com